■ 긴급점검 / 올 약초농사 작황은…

뿌리약재 "豊" 열매류는 "凶"

황기 당귀 생산량 증가, 산수유등은 물량 달릴듯

본격적인 햇것 출하시기를 앞두고 있는 요즘 생산농가에서는 수확작업을 서두르는 일손이 분주하다. 모든 농작물이 대풍을 이룬 가운데 한약재도 전반적으로 좋은 작황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황기, 당귀등 뿌리작물 재배면적은 예년에 비해 비교적 20~30% 증가했으며 지금까지의 작황은 그런대로 풍작이다. 그러나 구기자, 오미자, 산수유, 대추등 열매류는 상대적으로 작황이 부진하다. 8~9월 사이에 충분한 비가 내리지 않고 계속된 가뭄이 그 원인. 올 하반기부터 내년까지의 국산 약재 시세 등락과 수급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올 한해 주요약재 작황 동향을 알아본다.

〈편집자 주〉

작약 4년근 씨알 잘아

햇것이 출하되고 있는 요즘 작약 작황은 그리 좋지 않다는 분석이다.

『4년 묵어 캔 것도 2년 묵어 캔 것 만큼 씨알이 잘아 평당 수확량이 형편없다』는 산지인의 전언.

최근 3~4년전부터 곤두박질 한 작약시세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재배의욕을 상실한 농가들에서 작약밭에 신경을 쓰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버린 탓. 수확면적이나 작업인원도 예년보다 절반으로 감소했다. 작황도 부진한데다 지금 시세로는 타산이 안 맞기 때문.

지금까지 누적된 재고가 워낙 많아 올 내년 당장의 수급에는 별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올 작황부진 관계로 씨알 굵은 햇것이 귀해 상품가격은 다소 오를 것이란 전망이다.

박종연 이사(생약협회 의성군 사무소장)는 『이곳 의성지역에서 매년 많을 때는 건근으로 3백만근 까지 작약이 생산됐으나 올 수확예상량은 약 13만근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이대로 간다면 내년 거의 수입에 의존해 오고 있는 감초가 국내에서도 시험재배되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생약협회 포천군 사무소장 이인기씨(59)는 올봄 5천평 규모의 약초시험포를 만들면서 다섯평 남짓한 공간에 감초 분주 30근 정도를 식재했다.

어느새 6개월, 1m남짓 곧게 자란 대궁에는 수확면적이 더욱 감소 생산량도 갈수록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당귀 풍작, 면적 증가

재배면적도 지난해 보다 20~30% 가량 증가했고 작황도 괜찮은 편으로 올 당귀농사는 드물게 풍작을 거둔 해다.

지난 95년 당귀값 폭락으로 지난해 재배면적이 급격히 감소했다가 그 영향으로 시세가 어느정도 회복세로 돌아선듯 하자 올 재배면적도 더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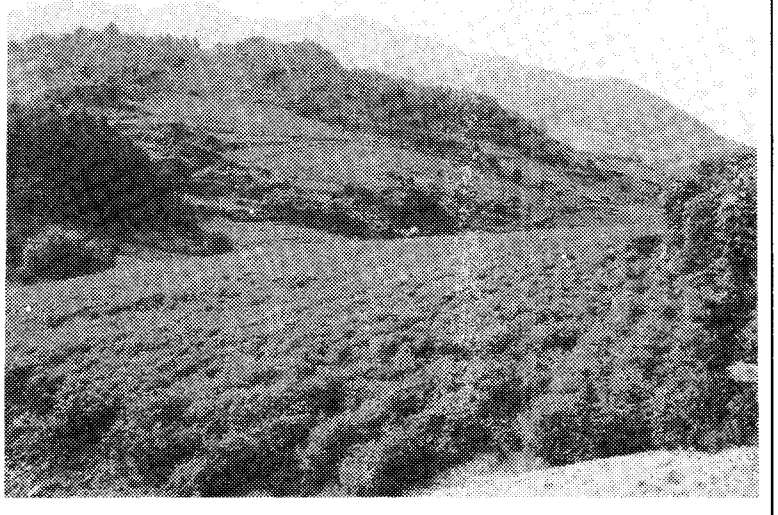
산수유 열매 부실

8~9월 사이 가뭄으로 산수유 열매가 실하지 못하다. 열매를 채취해서 씨를 발라내야 하는데 열매가 쪼글쪼글 말라서 씨빼내는 작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농촌등유휴노동력의 감소와 인건비 상승 영향으로 산수유는 몇해전부터 생산량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 재고량도 없고 이달중순부터 11월까지 본격적으로 햇것이 출하될 것으로 보이지만 올 작황도 예년만 같지 않다.

정일영 사무소장(생약협회 구례군사무소)은 『전근으로 30만근 이상이 이곳 구례 산수유의 평년작이라 할 수 있는데 올해는 15만근 정도로 예년 수확량의 절반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산 보따리 물건이 기승을 부림에 따라 국내 산 산수유 값이 안정세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국내 산수유 생산량 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경기도 포천 제외 전반적인 풍작

황기 작황이 부진한 연작피해로

경기도 포천·연천지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 평년작이거나 풍작이라는 분석이다.

다른 작물에 비해 소요량도 많고 판로도 어느정도 안정적인 탓에 재배면적도 예년보다 크게 늘어 지엽적인 작황부진 현상을 충분히 만회할 만큼의 생산량 확보가 예상되고 있다.

단지 최근 시장내에서 곰공연한 비밀로 회자되고 있는 상당량의 수입황기 유입설 파문에다 약 20만근 정도로 추정되는 지난해 재고량이 막 수확을 앞둔 황기재배 농가들의 판로에 상당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인기 (생약협회 포천군사무소장)

"감초시험 재배 성공"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해 오고 있는 감초가 국내에서도 시험재배되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생약협회 포천군 사무소장 이인기씨(59)는 올봄 5천평 규모의 약초시험포를 만들면서 다섯평 남짓한 공간에 감초 분주 30근 정도를 식재했다.

어느새 6개월, 1m남짓 곧게 자란 대궁에 아카시아 잎사귀를 닮은 감초잎이 무성하다. 그 중 하나를 솔루리채 뽑아보니 그새 뿌리도 제법 실하게 뻗어 있고 향긋한 단맛이 오래 입안에서 거의 수입에 의존해 오고 있는 현실이 늘 안타까웠다는 이소장은 그래서 언젠가는 국내재배가 다시 시도해야 할 품목이라고 생각해왔다.

이소장이 국내 감초 재배를 시도한 것은 소비자들의 신토불이 인식이 부족했던 터라 판로확보가 쉽지 않았고그래서 포기했던 것.

『감초는 습지를 피한 비옥한 땅에서 재배한다면 제초작업을 위해 따로 일손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병충해에도 강해 재배하기가 수월한 품목인것 같다』고 설명하는 이 소장은 내년에는 1~2천평으로 감초 재배면적을 더욱 확대해 나갈 생각이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그때만 해도 소비자들의 신토불이 인식이 부족했던 터라 판로확보가 쉽지 않았고그래서 포기했던것.

『감초는 습지를 피한 비옥한 땅에서 재배한다면 제초작업을 위해 따로 일손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병충해에도 강해 재배하기가 수월한 품목인것 같다』고 설명하는 이 소장은 내년에는 1~2천평으로 감초 재배면적을 더욱 확대해 나갈 생각이다.

시세동향

햇것 출하시기, 초재가격 전반적 하향세

하수오 "추락시세" 황금 고본 등 품귀현상

본격적인 햇것 출하시기에 임박해서 예상했던 대로 초재시세가 전반적으로 하향곡선을 그려가고 있다. 이미 출하시기가 지난 익모초나 인진, 박하등 풀잎약재들의 경우만 약간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대부분의 다른 약재들은 적게는 근당(6백g 기준) 2, 3백원, 많게는 2, 3천원까지 값이 떨어지고 있다.

그중 산수유, 황금, 식시호 같은 품목은 물량이 귀해 거래량이 거의 없는 관계로 현실적 시세추정이 어려운 상황.

[하수오] 개량종 하수오가 지난해부터 확대 보급됨으로서 재배면적도 대폭 증가, 굵직한 하수오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지난달 까지만 해도 근당(6백g 기준)도매시세로 7천5백원 선이던 상품이 근당 5천원 선으로 크게 떨어졌다. 하수오 하락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내에서는 3천원선까지 곤두박질 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당귀] 통으로 큰 당(6백g 기준)귀는 근당 6천원선에 산지거래되고 있다.

[고본] 물량이 귀하다. 소요량이 적은 관계로 국내 재배량도 극히 미미한 수준인데다 어느 특정인에 의해 물량이 독점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추론도 나오고 있다.

현재 거래되는 근당 도매시세는 통으로 6천원선 절고본은 6천5백~6천8백원 선이다.

[오미자] 찾는 사람도 없고 물량도 없는 상황. 주산지인 전북 장수군에서 생산되는 오미자의 40% 이상이 생것으로 제주도에 판매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약용으로의 오미자 출하물량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현재 거래시세는 근당(6백g 기준)1만3천~1만3천5백원선, 생것으로는 근당 3천원 선이다. 열매를 채취, 세척, 건조, 포장과정을 거쳐 건근으로 판매하는 것 보다 생것인 채로 넘기는 것이 훨씬 채산성이 맞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생것 출하를 더 선호하고 있다고.

[구기자] 열매가 굵지도 않고 헛꽃이 피었다 낙화하는 바람에 수확량은 그리 많지 않고 예년보다 크게 떨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구기자 산지인 청양의 조병섭 소장(생약협회 청양군 사무소장)은 『청양지역에서만 예년보다 10만근 이상의 생산량 감소가 예상된다』고 귀띔.

예년 이맘때 같으면 청양군 산지에서 햇것물량 2만근 정도가 유통 거래됐으나 요즘은 5천근 정도가 고작이라고.

구기자 산지인 전남 진도군 역시 재고물량도 없고 작황이 부진해 물량이 빠듯할 것이라는 이곳 산지인의 추정이다.

진도군 산무소장 김홍엽씨는 『이곳 진도에서 매년 30만근(건근) 정도의 구기자가 생산돼 왔으나 올해는 15만근 정도 예상된다며 가을 가뭄과 생산농민들의 재배기피, 무관심이 작황부진 이유라고 분석.

수확량 떨어져